

[제주잠녀]93.<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4)서귀포시 서귀동

항구에 밀린 바다 발을 지키다

등록 : 2007년 11월 11일 (일) 17:22:40
최종수정 : 2007년 11월 11일 (일) 17:22:40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바다는 그렇다.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맨살의 얼굴'로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아니 바다답다. 바다는 매일 바다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 소리는 조금씩 세월에 묻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저 웅이진 손마디, 훈장처럼 자리를 잡은 굴은 살만으로 바다, 바다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바람 불면 바람소리 속에, 웅웅웅 바닷 물음 속에 신음갈기도 하고 한숨갈기도 한 숨비소리를 실어내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지만 바다는 아직도 '잠녀'들을 부른다.

△가장 많은 마을이 지키고 있는 가슴 바다

서귀동 어촌계는 제법 많은 마을로 구성돼 있다. 어촌계를 구성하고 1종 공동어장을 조성하면서 상호(보목동과 통합)·서호(법환동 *)·월평(감정동 *)·대포(중문·색달·하예와 통합)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서귀·서흥·송산·동흥·정방·천지동 등이 서귀동 어촌계로 묶여졌다.

어촌계원이 418명으로 제법 규모가 크지만 이곳 잠녀는 꼭 50명, 이중 상시 물질을 하는 잠녀는 35명이다.

서귀항이 들어서면서 '배'를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촌계가 운영되면서 잠녀들은 정방폭포와 잠녀들이 '항우지'라고 부르는 관광잠수함 선착장 인근 '해녀의 집' 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다 일'을 하고 있다.

한해 소라 TAC물량은 8000~1만kg 상당, 서귀항 개발 등으로 바다가 좁아지면서 물건 역시 줄어들었지만 '장사'를 하는 탓에 소모량은 많다고들 했다.

49살부터 79살까지 잠녀들 중 60대 이상만 40명,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 보다는 물에서 바다를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뒤따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녀의 집 운영을 위해 상시 잠녀를 포함해 4명씩 조를 짜 수익을 나누고 있다. 예전에는 수익을 모두 모아 월급제로 운영하다 이제는 구역기준으로 한달 수익을 조별로 나누는 방식을 쓰고 있다.

잠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소라 등 해산물 모듬 한 접시를 주문했다. 잠수함을 타러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개시'도 못했다며 젖은 고무옷도 벗지 못한 한 노 잠녀의 뒤를 쫓았다.

"뭐가 그리 궁금 한게 많냐"며 통명스런 목소리와는 달리 잠녀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싫지는 않은 표정이다.

"종패를 뿌린다 뭐다 해도 이제는 물건이 많지 않다"며 술술 바다 얘기를 풀어내는데 노 잠녀 옆으로 시간이 잠시 거꾸로 흘렀다.

△잊어져가는 것, 변해가는 것

누구든 살아온 인생이 그 손에 묻어 나오기 마련이다. 주인의 지난 삶을 기억하고 그대로 제 몸에 새기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가는 사람들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채 부지런히 테왁 망사리를 짜던 손도, 오전 바다에 들어가 직접 채취한 소라를 들어 보이는 손도 '몬전히'바다다.

서귀항이 개발되면서 이곳 어촌계에 소속된 배만 392척에 이른다. 그만큼 잠녀들의 설 자리도 좁아졌다.

"새섬 옆으로는 가지도 못해" 굵은 주름살이 이내 깊어진다. "항우지 지선에 종패를 뿌리고는 있지만 특별히 남는 것도 없다"며 "5~6월 성계가 조금 나는 정도지 '물건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싶어 서귀동 어촌계는 올해부터 '바지선'을 운영하고 있다. 자구리 앞쪽을 운영하는 바지선은 수익사업을 위한 선택이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올해 1000만원 안팎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바닷가의 싱그러운 내음을 매기하기에 오가는 사람들과 배의 분주함으로 바다는 아련한 흔적처럼 남아 있다. 아직 그 바다에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들만의 것이 아닌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바다다.

한라산을 타고 내려온 맑은 물이 들어오는 자구리 등 특유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잠녀들에게 허용된 바다는 이제 일부밖에 없다.

잠녀들이 토해내는 한숨에 이내 색이 변할 듯 넓지 않은 바다 밭, 그 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잠녀들의 그림자가 스산하다.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서귀포시 법환동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